



〈건초수레〉-1516년경, 패널에 유채, 136*100〈중앙〉136*46〈양쪽〉,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 소장

- 욕망을 경고했던 히에로니무스 보쉬 -

욕망은 재미없는 삶의 즐거움을 주는 활력소이자 인생의 발전을 가져다주는 근본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욕망을 집착하게 되면 오히려 인생의 발전보다는 스트레스로 마음이 더 황폐해진다. 인간의 욕망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그린 화가가 보쉬다. 보쉬는 종교적 도덕주의자로 기괴하고 독창적인 그림을 통해 정신적 진리의 메시지를 담았다.

보쉬가 인간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을 담은 작품이 〈건초수레〉다. 이 작품은 세 폭의 패널로 그린 트립티크로 ‘세상은 건초수레와 같다. 우리 인간 모두는 될 수 있는 한 많은 것을 가지려 욕심을 부리고 있다’라는 14세기 플랑드르 지역에 내려오는 고대 속담에 의해서 그려졌다.

인류의 타락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 작품에서 양쪽 패널은 인간의 삶과 끝

을 보여주며 중앙 패널은 유혹의 위험들을 보여준다. 왼쪽 패널에서 아담과 이브가 세 번 등장하는데 이브의 창조와 원죄 그리고 에덴동산에서 추방이 위에서 아래로 그려졌다.

중앙 패널에서 마차에 실린 건초 꼭대기에서 천사가 인간을 위해 그리스도에게 중재를 부탁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 천사 옆의 한 쌍의 남녀가 음악을 들으며 포옹하고 있다. 그 옆에 공작새의 꼬리를 한 파란색의 악마가 있다. 인간들은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향락에 빠져 있다. 하늘에 있는 구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수난의 상처를 보이면서 있다. 유일한 구원을 제공할 수 있는 이는 그리스도지만 건초 마차를 탄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

건초 수레 주변은 인간 세상을 풍자한다. 한쪽 방향을 달리고 있는 건초 수레는 부질없는 세상에서 일에 사로잡힌 인간을 의미한다. 건초 수레 앞에 화려한 의상을 입고 말을 타고 있는 인물들은 교황과 프랑스 황제를 상징한다. 권력을 쥔 사람도 죄악 앞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초 수레는 인간의 욕망을 상징하며 욕망은 인간을 지옥으로 이끈다는 내용이다.

오른쪽 패널에서 악마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악마들은 벌을 받게 될 인간들을 수용할 탑을 만들기 위해서다. 보쉬는 지금의 네덜란드에 속해 있는 스테르토헤보스의 미술가 집안에서 태어났다. 가족으로부터 도제 수업을 받은 그는 화가로 일찍 명성을 얻어 그 지방의 교회, 중산층 그리고 귀족들을 위해 종교 제단화를 그렸다. 또한 그는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는 성모 마리아 형제회에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스테르토헤보스의 문화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 보수적인 종교단체 형제회는 당시 인기가 많아 부유한 사람만이 활동할 수 있었다. 형제회는 보쉬의 작품 세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보쉬는 중산층 가정에서 자라 생계를 위해 그림을 팔지 않아도 될 정도로 부유했다. 그가 특이하고 기괴한 주제를 그릴 수 있었던 것도 재정적인 여유에서 비롯된다.

보쉬의 작품의 반 이상이 선인들의 삶과 그리스도의 생애 특히 수난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지만 그의 종교화는 동시대의 화가들과는 달랐다. 그는 작품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대부분 북유럽의 전통적인 방식을 따르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연금술, 점성술, 민속노래 등을 그려 넣어 작품을 제작했다.

르네상스 양식을 무시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자신만의 생각을 표현한 보쉬는 전통적인 종교 제단

화를 그리기도 했으나 인간의 죄와 부도덕함을 고발하는 공상적인 그림들로 유명해졌다. 그는 벌레들이나, 양서류, 반인반수의 괴물들을 창조해 환상적인 이미지를 창출했다. 보쉬 이전에는 괴물이나 환상으로 채운 작품들이 없었다.



〈쾌락의 동산〉-1540년경, 패널에 유채, 중앙 패널 220*195, 양쪽 패널 220*97,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 소장

보쉬의 공상적이면서 환상적인 대표적인 보쉬의 작품은 〈쾌락의 동산〉이다. 보쉬는 이 작품에서 특히 남녀간의 사랑을 바탕으로 한 성적욕망은 풍요로운 세계로 이끄는 관문으로서 인간의 본원적인 갈증을 해소해주고 있지만 지나치게 성적 욕망에 빠져 쾌락만 추구한다면 남녀간의 사랑은 더 이상 사랑으로 존재하지 않고 쾌락의 도구로만 여겨지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

이 작품 세 개의 패널로 된 트립티크로 왼쪽 패널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데 마치 공상 과학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보쉬의 상상력으로 채워진 이 패널은 수수께끼 같은 요소가 많아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왼쪽 패널은 에덴동산을 배경으로 아담과 이브가 그려져 있고 붉은 옷을 입은 그리스도가 아담과 이브의 결합을 축하하고 있다. 이 패널의 이야기는 아래에서부터 시작해 위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리스도 뒤로 생명의 샘 중앙에는 고딕식 성당과 비슷한 구조의 가느다랗고 기다란 장밋빛 조각

이 우뚝 솟아 있다.

화면에 기린이나 코끼리 등 진기한 동물이 많이 그려진 이 패널은 에텐동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다. 장밋빛 분수 안의 올빼미는 암흑과 유혹 그리고 성적 타락을 암시하고 있으며 낙원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중앙 패널은 인간의 쾌락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정원은 여러 세기 동안 연인들의 사랑의 행위를 위한 무대였다. 넓은 정원에서 젊은 남녀들이 옷을 벗은 채 과일을 먹고 있거나, 새나 동물들과 어울리고, 물에서 장난을 치면서 희롱하고 있다. 연못에는 처녀들이 들어가 물놀이를 하고 있고 말을 탄 남자들이 연못근처를 맴돌고 있으며 몇몇 형제들은 날개들을 달고 하늘로 날아오르고 있다.

다산을 기원하는 축제에서 영감을 묘사한 연못 근처에서 짐승을 타고 있는 남자들은 당시 죄악과 정욕의 표시였다.

창백한 남자와 여자의 몸은 정원 군데군데 있는 검은 피부의 사람들로 인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붉은색 열매를 손에 들고 있거나 머리를 장식하고 있다.

이 패널에서 이국적이고 환상적인 동물은 죄악의 다양한 얼굴을 상징하고 있고 딸기와 앵두는 성적 욕망을 상징한다.

중앙 패널에서 가장 특이한 것은 화면 왼쪽 속이 비치는 공간에 있는 남녀다. 유리처럼 환하게 비치는 공간은 ‘행복은 마치 유리 같아서 쉽게 깨지고 만다.’라는 플랑드르 속담을 표현했으며 한 쌍의 남녀는 성적 쾌락을 상징한다. 또한 왼쪽 아래 거품 속에 갇혀 있는 커플과 그 옆에 조개껍질 안에 숨겨져 있는 커플 등을 통해 육체적 쾌락을 직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중앙 위 호수 위의 독특한 구조물은 보쉬가 창안한 것으로 쾌락을 상징하고 있는 탑이다.

마지막 오른쪽 패널은 지옥을 상징한다. 화면 위는 어두운 배경 속에 건물들이 불타오르고 있고 화면 중앙에 하얀색 괴물은 귀를 형상화 한 것으로서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라는 복음서의 메시지를

암시한다.

벌거벗은 사람이 악마의 손에 의해 류트의 목에 매달려 있으며 또 다른 벌거벗은 사람은 하프의 현에 감겨져 있다. 이 패널에서 악기에 매달려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은 쾌락에 빠져 있던 사람들에게 주는 형벌을 암시한다.

보쉬의 이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식물과 동물 그리고 인물들은 쾌락을 상징하고 있다. 보쉬는 성적 쾌락을 쫓은 삶은 인류의 영혼을 위협하다는 대한 경고를 담았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이국적인 구조물들은 당시 대중가요 격인, 속어로부터 보쉬가 영감을 얻어 에로틱한 상상력으로 그려낸 것들이다.

쾌락으로 인한 지옥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쾌락의 동산〉에 등장하는 기괴한 물건들은 15세기에는 볼 수 없었던 것으로 화가의 상상력으로 그려진 것들로서 보쉬의 기상천외한 상상력이 돋보이고 있다.

보쉬가 만들어낸 이미지들은 정확한 의미를 밝혀내기가 힘들어 오늘날까지 다른 어떤 화가들보다 논쟁을 만들어 내고 있지만 인간의 악을 탐미하는 성향과 음란과 퇴폐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러한 일들은 인간을 지옥을 떨어뜨린다는 것이 주제다.

히에로니무스 보쉬(1450경~1516)의 생애에 대해 거의 알려진 바가 없지만 당대에도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독창적인 세계를 펼쳐 명성을 얻었다. 그는 플랑드르의 민속을 바탕으로 그림에 도덕적 교훈을 끌어냈지만 사후 보쉬의 작품은 이해받지 못해 잊혀졌다. 하지만 보쉬가 풍부한 색채를 사용해 자유분방한 상상력이 만들어 낸 세계는 20세기 피카소, 달리 등 초현실주의 화가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간 “지방재정과 지방세”는 지방재정·세제가족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전문교양 지로써 아래와 같이 지방재정·세제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세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논문이나 사례, 수기 등을 보내주시면 채택된 원고에 대하여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 제안 · 논문

지방재정·세제발전과 업무개선에 관한 의견

■ 우수사례

각 자치단체의 독특한 재정·세제활동이나 우수 사례로 널리 홍보하고 싶은 내용

■ 수필

실무자로서 현장에서 느끼는 보람이나 어려움 그리고 지방재정·세제인의 가족으로서 느끼는 생활이야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전략기획실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253-42
지방재정회관 (우)121-719
Tel : 02)3274-2036
Fax : 02)3274-2009
E-mail : enyoutho@klfa.or.kr

“지방재정과 지방세”지에 실린 원고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본회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과 지방세

2010년 08월호
(통권 제 32 호)

발행인 김국현

편집인 정현울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

편집위원 객채기 | 동국대학교 교수

김대영 | 전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국장

노영훈 |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완규 | 중앙대학교 교수

손희준 | 청주대학교 교수

안경봉 | 국민대학교 교수

유경문 | 서경대학교 교수

유태현 | 남서울대학교 교수

이삼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이영희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만수 | 한양대학교 교수

최진혁 | 충남대학교 교수

(이상 가나다순)

조봉업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장

변성완 |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장

구본근 |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장

이보환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전동훈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장

진명기 | 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장

발행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발행일

2010년 8월 일

디자인 · 인쇄

금성문화사 (02-2263-4906~7)